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한 [빌립보서 1:12-18]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2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 이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15 어떤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때때로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많은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수요가 있다는 것을 대변합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맡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일들로 넘쳐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새기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당한 것인가!” 배신당한 이야기, 구타당한 이야기, 매질당한 이야기, 뇌물매수 이야기, 거짓고소 이야기, 정의가 조롱당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 자신의 교회의 식구들로부터 공격당한 이야기. 그의 소원은 전도자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나 죄수의 신분으로 족쇄에 채워져 로마에 끌려갔습니다. 누군가 어떤 이유로 손을 허공에 들어 화가 난다고 말한다면, 또는 누군가 너무 많은 것을 해야 된다면, 너무 어렵다면, 너무 힘들다면 또는 너무 외롭다면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의심할 여지없이 사도 바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를 선택하는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12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12). 믿음의 삶이란 삶의 모든 것이 내 방식대로 흘러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이상적인 환경, 긍정적인 격려, 환상적인 지원 그리고 완벽한 헌신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복음을 진전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이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참고. 존 번연). 로마서 8장을 믿는다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은 그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그 상황들 자체가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문해야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들을 누가 채우시나? 우리가 깨어나 드는 생각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는 잠들 때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납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히 삶에 필요에 의해 일어난 일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들입니까?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서 1:14).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더라도 —몇몇은 바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을 그것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 사랑은 잘못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해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빌립보서 1:16). *‘18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18).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능력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8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18).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안전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흘러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섬기도록 합니다.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8).